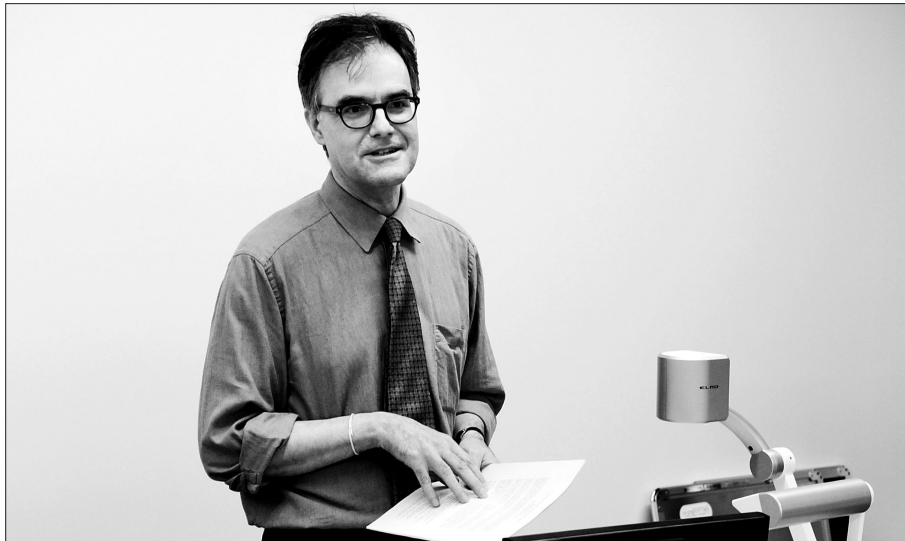


# “英 불교관심... ‘믿음’ 보단 ‘실용성’ 때문”

게티 교수, 英 친불교 경향 주목...  
“불교 소비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루펫 게틴(Rupert Gethin) 교수, 브리스톨 대학 산하 ‘불교학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서구 사회에 비친 불교’를 주제로 다양한 저술을 펴내고 있다.

“영국에서 불교는 종교에 앞서 ‘명상’과 ‘치유’로 정의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라는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영국의 종교 성향은 단지 ‘믿음’을 따르기 보다는 ‘삶의 실용성’에 더 우위를 두는 경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브리스톨 대학 산하 ‘불교학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운영하고 있는 루펫 게틴(Rupert Gethin) 교수가 최근 (HAARETZ)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 주목된다. 또한 유대인들이 발간하는 글로벌 영자 매체 (HAARETZ) 지에서 기획·진행한 인터뷰라는 점에서도 이채롭다.

이번 인터뷰에서 게티 교수는 영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통 믿음의 위기’를 꼽았다. 20세기를 살아가며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정의한 절대 가치에 대한 ‘의심에 찬 질문’을 던져야 했는데, 그때 서양에 등장한 종교가 바로 불교였다.

“서양의 절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사유의 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게티 교수는 “동양의

정신, 특히 불교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은, 당시 회의를 품었던 영국인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라며 “지금도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AARETZ) 지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 영국인들이 불교나 명상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라고 주목하고 게티 교수의 말을 인용, “업보, 중생, 윤회 등의 불교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는 교리에 앞서 수행을 통해 깨치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며 “절대 가치에 대한 질문은 ‘내면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믿음을 강요하는 ‘교리’ 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행’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HAARETZ) 지는 “절대 가치에 대한 회의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느끼는 분노, 두려움, 고민 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비롯됐다”는 게티 교수의 말을 인용, “영국의 기존 종교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기독교 가치에 의지해 해결하려고 한 반면, 불교는 ‘대응에 앞서 먼저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영국의 청장년들이

이러한 차이점에도 주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티 교수는 “불교가 영국에서 ‘종교적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아직까지 영국에서 명상이나 치유라는 ‘소비 상품’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 병원에서는 환자 치유를 위해 명상을 접목하고 있고, 근로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접목하고 있다. 개개인 역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명상에 접근하고 있다.

“수행” 보다는 ‘복용’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게티 교수는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불교는 아니다”라며 “혹자들은 ‘그것도 불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 영국에 건너온 불교가 교리와 수행에 주목했다면 지금의 불교는 실용과 효율에 더 주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부처님께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고, 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제한 게티 교수는 “그러나 고에서 벗어나는 데 단지 ‘일상 극복’을 뜻하지 않는다”며 “일상 극복은 불교의 단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영국의 불교는 종교성보다는 실용성에 가깝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리처드 기어, 달라이 라마 생일 법회 초청

“불교 수행은 내게 삶의 모든 것”



리처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린 법회에 참석했다.

리처드 기어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쉬닷컴은 7월 6일 (현지시간)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기어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레 교외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이날 법회는 달라이 라마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리처드 기어를 비롯한 수만 명의 신자와 군중이 참석했다.

리처드 기어는 법회에 모인 외국인 수천 명을 대표해 연단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인사했다.

30년 이상 수행해 온 불교신자인 리처드 기어는 스스로 “아직은 초심자”라고 말

하면서, 불교수행에 대해 “연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불교 수행은 내게 삶의 모든 것이 열리고, 미묘한 것을 느끼게 하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이슬람 수니파 반군의 시아파 유혈 공격에 충격을 받았으며 자제를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수니파 반군이 북부 5개 주 일대와 수도 바그다드 서부를 점령한 이라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니파가 같은 무슬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개탄했다. 또 달라이 라마는 불교국인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소수 종교파인 무슬림을 박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나는 기자

# 자카르타 글로독 불교계, 지역 화합 이끈다

다르마 자야 사원 필두로 이슬람교 등 타 종교 교류 활발  
사원 대표 축제 ‘록 퉁 의식’에 타종교인 지역주민 자력으로 대거 참여

자카르타의 차이나타운 글로독(Glodok) 지역의 불교가 종교를 넘어서 지역 화합을 이끌고 있다고 (Jakarta Post) 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독 지역의 중국불교계 사원이 다르마 자야(Dharma Jaya)가 매년 열고 있는 록 퉁(Lok Tung) 축제에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의 지역 주민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참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Jakarta Post) 지는 “260년 전 중국계 자카르타인에 의해 세워진 다르마 자야 사원의 록 퉁 축제는 방생(Fang Sheng) 법회와 무대 공연 등으로 이틀간 열린다”며 “첫째 날 마련되는 무대 공연에는 10여 개 팀이 참여하는데 주로 합창과 군무 등을 선보이고, 둘째 날 봉행되는 방생 법회는 수천여 마리의 조류를 날려

보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록 퉁 축제의 백미”고 전했다.

기독교도이지만 사원을 찾았다는 씨씨(Cici·57) 씨는 “두 아들이 사원의 재적 신도”라고 소개하고, “처음에는 아들들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사원을 찾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을 살린다는 뜻의 방생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록 퉁 축제의 공식 복장이 노란색 상의를 보여주었다.

록 퉁 축제 첫날 이슬람교도로서 공연 무대에 오른 아미르(Amir·35) 씨는 “글로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1979년부터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종교나 인종에 선을 긋지 않고 있으며, 사원에서 마련한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국불교계 사원이 다르마 자야(Dharma Jaya)가 매년 열고 있는 록 퉁(Lok Tung) 축제에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의 지역 주민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참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골독 지역에서 불교계가 지역 화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제한 (Jakarta Post) 지는 압둘 파타(Abdul Fatah·55) 씨의 말을 인용, “다르마 자야의 스님과 중국계 불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무슬림 고아

를 돕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사원 축제가 이제는 지역 축제가 되었다”고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타왕(Tawang)에서 티베트 불교 특유의 화려한 춤과 연극 등을 선보이는 토르가(Trogya) 축제가 3일간 열렸다고 (Mail online) 지가 보도했다.

타왕은 인도의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속한 곳으로 해발고도 3,500m 높이에 위치하며 유서 깊은 티베트 불교문화와 소수민족의 전통이 어우러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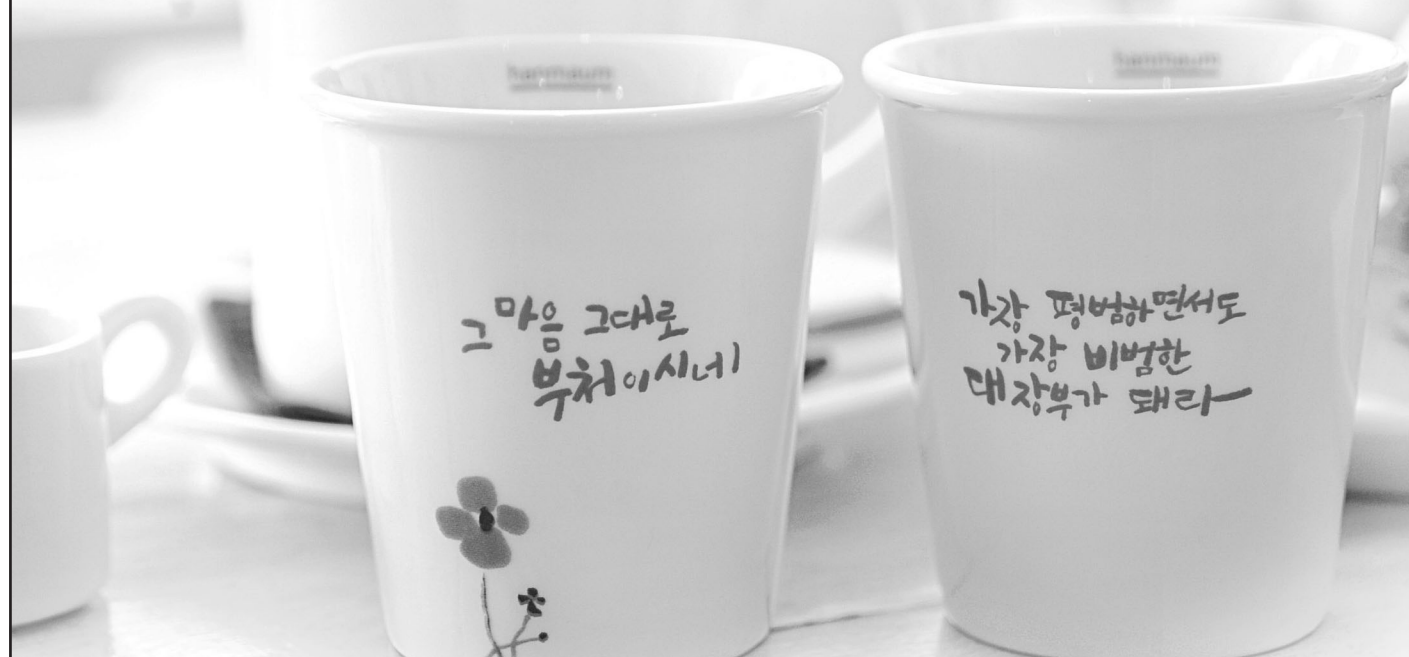
“이번에 열린 토르가 축제는 ‘악령을 추방하고 행복을 가져온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한 (Mail online) 지는 “타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타왕 사원(Tawang Monastery)의 안뜰에서 개최된 토르가 축제는 티베트 불교 특유의 화려함으로 고즈넉한 히말라야 산마루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축제를 촬영하기 위해 3일간 타왕 민가에 머물렀던 호주 사진작가 스텝 엑스포드(Stephen Axford)와 캐서린 메키니(Catherine Marciniak) 씨는 “인도, 부탄, 티베트 3개국의 문화가 만나 곳으로 인도 동북부만 한 곳이 없다”며 “토르가 축제의 화려함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면에서 세 나라의 문화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깊은 역사성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Mail online) 지는 “올해 토르가 축제에는 타왕 사원의 스님 100여 명이 직접 진행을 도왔다”며 “붉은 승복과 자주빛 문파족 전통 의상의 조화가 올해 타왕 축제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위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위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